

2019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회 의 명	2018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일 시	2019 06. 20.(목) 11:00
장 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1
참석인원	○ 운영위원: 13명 중 8명 참석 나상준, 주명식, 김재일, 최효정, 문광식, 최인선, 김영숙, 김재란 ○ 비운영위원(직원): 7명 홍대원, 한화현, 정연대, 박서윤, 허성우, 백아름, 김미숙
안 건	○ 보고안건 -전차회의록 보고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계획 ○ 심의안건 -신규추진사업 검토

회의내용

☐ 개 회

○ 성원보고

-홍대원 부장, 재적위원 13명중이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운영위원장 개회

- 운영위원장 나상준, 바쁜 대소사에도 복지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회의를 참석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건설적인 회의로 진행하자는 인사말로 개회하다.

□ 보고사항

○ 전차회의록 보고

- 홍대원 부장, 회의자료의 전차회의록을 보고하다.
- 나상준 위원장, 전차회의록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음을 위원들에게 확인하다.

○ 주요사업 추진결과

- 홍대원 부장, 회의자료의 주요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하다.
- 최효정 위원, 하안3동 1차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사결과에 대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본부)와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며, 다른 기관들에 선행사례가 될 것이라 평하다.
이에 대해 김재란 위원, 그와 같은 협력은 충분히 공감하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차원에서 사례관리관련 인원충원에 대해 건의하다. 더불어, 하안3동의 전수조사완료 후 그 외 권역(하안동 소하동 일대)까지 전수조사 구역을 확대함을 부연하다.
- 김재일 위원, 왓자지껄카페가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지 질의하다. 이에 대해 김재란 위원, 이 사업이 수익발생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공간임을 설명하며, 카페매니저가 적극적이고 지역주민에게 호응될 다채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는 일부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음을 부연한다.
- 김재일 위원, 4270초청 삼계탕축제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긍정 및 일부 아쉬움(이동상의 어려움 등)에 대해 평하다. 이에 대해 김재란 위원, 우리복지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직접 차량으로 참가자를 이동을

지원하고 사전답사 등으로 만전을 다해 준비하여 행사참가하신 어르신 및 주최측 모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부연하다.

○ 주요사업 추진계획

- 홍대원 부장, 회의자료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다.
- 최효정 위원, 전년에 비해 이용인원이 확대 진행되었음을 언급하다.
이에 대해 김재란 위원, 지역의 특성상 수혜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부족한 재원이기는 하나 최대한 재원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드리고자 노력하였음을 설명하다.
- 주명식 위원장 및 김영숙 위원, 사업진행에 있어 내실있는 진행도 같이 병행해야함을 언급하고 복지관에서 새롭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부분은 고무적이라 판단됨을 부연하다.
- 김영숙 위원, 복지관 운영에 있어 위탁변경 직후에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는 잘 정비되어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평가하다.
- 주명식 위원, 복지관의 하반기의 특별한 사업은 없는지 질의하여, 홍대원 부장, 차기안건으로 심의될 통일학교, 희망플랜광명센터 사업 등이 있음을 설명하다.

□ 심의사항

○ 신규추진사업 검토

- 홍대원 부장, 회의자료의 신규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하다.
- 나상준 위원장, 2019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나눔한마당에 있어,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농악반 등)과 연계하여 재능기부받는 것을 제안하다.
- 문광식 위원, 우리마을통일학교에 대해, 사업명을 조금 더 이용자중심의 친근한 제목으로 표현함에 대해 제안한다.
- 최인선 위원, 우리마을통일학교 진행에 있어, 초·중학교에서 교육에 대

한 수요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에 대해 주무팀장인 허성우 팀장은 사전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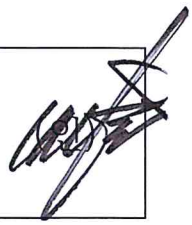
-김영숙 위원, 희망공작소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일부 동아리들이 그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사례에 있었는데, 현재의 형평성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여 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제안하다. 이에 대해 김재란 위원, 현재는 어느 특정 구성원들이 아닌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임을 설명하다.

-최효정 위원, 김영숙 위원의 발언 중 언급된 샤휴미서비스 공간에 대해 설치된 배경 등에 대해 문의하다. 이에 대해 홍대원 부장,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 작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샤휴를 대부분 본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서비스활성화는 아직은 어려운 것은 사실임을 설명하다.

□ 폐 회

-운영위원장 나상준, 다른 논의사항을 회원들에게 묻고,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폐회를 선언하다.

2019. 06. 20.

위원장	나 상준 
-----	--